

무인 공영자전거 ‘타랑께’ 애물단지 전략

이용률 감소 지속…날씨·카카오T 바이크 등 영향
접근성·편리성 떨어져…“민간기업 협업 등 강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무인 공영자전거 ‘타랑께’가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이용률 하락으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가 지난해 수익율을 들어 무인 대여소와 자전거를 도심 내에 설치했지만,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활성화한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 어긋나고 있어

서다.
게다가 민간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바이크’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길거리 관상용으로 방치되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상무지구 일대에 무인대여소 52곳과 200대의 자전거를 설치했다.

출시 초기에는 독특한 이름과 함께 큰 관심을 끌며 시민들에게 주목받았지만, 최근에는 이용률이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
타랑께의 올해 이용 건수는 6월 2,177건, 7월 1,636건, 8월 1,809건으로 최근 3개월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서비스가 도입된 첫 달을 제외하고 8월 2,399건, 9월 5,339건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이 같은 추이는 여름철 높은 기온과 장마의 영향도 있었지만, ‘카카오T 바이크’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T 바이크는 지난 5월 1,000여대 규모로 광주에 도입됐는데, 타랑께의 이

용률이 급격히 감소한 6월과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1,000원에 90분을 이용할 수 있는 타랑께는 카카오T바이크에 비해 저렴하지만, 반납 장소가 상무지구에 국한돼 있어 이용 반경이 좁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카카오T 바이크는 대여와 반납이 자유로와 이동제한이 없어 더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북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27·여)는 “타랑께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가고 싶어도 상무지구까지 가야 해 매우 불편하다”며 “카카오T바이크는 대수도 훨씬 많아 어디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대여와 반납도 쉬운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타랑께는 정거장마다 이용 편차가 심해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곳은 자전거가 먼지가 쌓이고 노후화가 진행되는 등 관리 소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여 및 결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현황 사이트는 실제 자전거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정보 오류도 잦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가 타랑께 도입에 앞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자전거 사업을 시행해온 지자체들은 적자 문제 등으로 하나둘 사업을 종료

하거나 종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는 이미 사업을 종료했으며, 안산시도 공공자전거를 올해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타랑께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정거장을 확대하는 등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수익 창출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한정된 예산 아래 운영되는 지자체 사업이다 보니 시설 관리부터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공공자전거의 목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였기 때문에, 카카오 바이크를 향한 성급한 규제나 경쟁보다는 시민들의 편의와 자전거 이용 확대라는 공익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한 최선의 방향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빈 기자

“공공의료 확대·인력 확충”

보건의료노조 지역본부, 시청 앞서 기자회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6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대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반드시 승리해 위드코로나 시대 광주의 공공의료 확대와 보건의료 인력확충,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지난 1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서로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지만, 지역에서 파업이 진행되는 것은 지금 현장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가장 절박한 요구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보건의료 노동조합 총파업은 철회됐지만,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속 4개 병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조선대병원지부와 광주시립오양병원지부, 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는 파업을 하고 있으며, 전남대병원 노조는 이날 사측과 합의하고 5일만에 정상업무에 복귀했다.
노조는 “현재 광주에는 광주 제1시립 요양병원·정신병원, 광주제2시립요양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위탁 운영되고 있다”며 “광주시는 이들 병원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

고 말했다.
노조는 “요양병원 특성상 간병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최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화도 제대로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병한다”며 “환자 만족도는 떨어지고 부족한 부분을 간호사들이 매꾸느라 이중고에 시달리는 등 폐단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간호등급 편법 운영, 경력산정이나 근무복 지급 시 부서별 차별 등도 지적했다.
노조는 병원의 모든 직종과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선대병원의 경우 환자이송원 정원이 30명이지만 최저임금, 3교대, 1년 11개월짜리 비정규직 근무 조건으로 인해 22~24명밖에 없다”며 “조리, 세탁 운반, 장례지도사 등도 숙련도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와 2021년 임금·단체협상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양측은 파업에 돌입 다음날인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임금 총액대비 0.9% 인상과 필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교육휴가 1일 부여,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때 청원휴가 3일 등에 합의했다. /최환준 기자



성폭력 예방 전시회 6일 오전 광주시 서구청에서 열린 ‘2021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에 참가한 서대석 서구청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청사 로비에 마련된 성폭력 예방 판별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광전노협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건설, 과도한 특혜”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잔여 부지에 아파트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의견 청취를 이틀 앞두고 ‘부영그룹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지역사회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부영그룹은 영업 중이던 골프장 부지의 절반을 한국에너지공단 캠퍼스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부지에 아파트 5,000

여 가구 신축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도시계획 변경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오는 30일까지 진행 중이지만 부영그룹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같은 기류 속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노동조합 협의체인

‘광전노협’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안 설명회에 앞서 나주시는 부영CC 잔여 부지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대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전노협은 “부영그룹은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얻는 수익금의 상당액을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위해 적극 출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광주·전남 수능 3만1,515명 응시
정시확대 영향 전년대비 929명 늘어

오는 11월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광주·전남에서 모두 3만1,515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학년도보다 광주 656명(4.0%), 전남 273명(1.9%) 등 929명 늘어난 것이다.
6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발표한 2022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올 광주지역 수능 응시자는 1만7,034명으로 전년 대비 656명(4.0%) 증가했다.
고3 재학생이 1만2,977명(전체 76.2%)으로 전년대비 544명 늘었다. 졸업생은 135명 증가한 3천593명(21.1%),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3명 감소한 464명(2.7%)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응시자는 1만4,481명으로 전년대비 1.9%(273명) 늘었다.
고3 재학생이 1만2,142명으로 전년대비 130명 증가했고 졸업생과 기타 응시자가 2,339명으로 143명 늘었다. 전년대비 전남지역 수능 응시자는 1만4,208명(재학생 1만2,012·졸업생 1,896·기타 300)명이었다. 이는 대학 정시 확대, 역대 학부생 모집, 수도권 지역균형선반 교과전형 실시 등으로 응시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늘어 수능 지원자도 덩달아 증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나라 기자

상무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40평(전용) 2억 3천(용1억) 보1천 월100 2) 60평(전용) 4억3천(용2억6천) 보2천 월200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5억8천(용 3억6천) 월수익 280만 (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광주에서 20분 (6M 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200평,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 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010-6670-9800	◆ 월수익 750만 ◆ 연수익 9천만 ◆ 매매 13억 (용6억 5천) ▶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지정유, 입주맞공사시작, 엘리베이터 있음, 주인세대있음. 010-6670-9800	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 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 •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 광주광산구 신가동(아파트)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9/8) 서구 치평동(아파트) ▶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9/14) 광산구 도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2억3천 (9/16) 북구 문흥동(근린상가) ▶ 감정가 13억4천 -> 최저가 9억5천 (9/17) 북구 신용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9/17)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14억9천 -> 최저가 6억6천 (9/28) 전남회순군 도곡면(근린시설) ▶ 감정가 10억 -> 최저가 5억9천 (9/16) 회순군 백이면 (근린시설) ▶ 감정가 13억 ->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가동(근린주택)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장) ▶ 감정가 68억 ->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 감정가12억7천 -> 최저가17천 (10/12) 시외충남 홍성군 장곡면(근린주택) ▶ 감정가6억3천 -> 최저가2억1천 (9/14) 부안군 변산면(숙박시설) ▶ 감정가 4억 5천 -> 최저가 2억 2천 (9/27) 062-382-5500